

분포문화체육센터 기부채납 원안가결

남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김병태)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성동환 의원은 '공영·소규모 공동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박미순 의원은 '용호만 극지타운 유치로 남구의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의회는 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안건을 심사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미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강영)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박기홍 의원은 '위원회 구성시 청년할당제 도입과 관련하여'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제26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2017년 행정안전부(선거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안내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현행 남구의회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처절한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법률용어



남구의회는 제261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순화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확충 인력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2018년도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조직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남구 병상장 개관 운영에 따른 사업소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

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원안가결)

- 「정부조직법」 개정 및 보건소 하부조직 개편, 팀제 운영에 맞게 중앙 부처 인용 명칭과 부서·팀 명칭을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용어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의 협의를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성 및 활동 실적이 없고,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역할이 중복되어 존치 실효성

상실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분포 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기부채납)](원안가결)

- 2017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남구·아이에스동서(주)간의 합의서에 따라 건립 부지 용호동 176-87번지 800㎡와 해당 부지에 건립 중인「분포 문화체육센터」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기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 기부채납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시점(2018. 3월 중)에 기부하려는 자인 아이에스동서(주)와 기부채납을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존 조치를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남구의회·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정메카니즘 벤치마킹



남구의회 김병태 의장(오른쪽)은 지난 1월 31일 남구의회를 방문한 동대문구의회 주정 의정과 의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김병태 의장 “의정활동 홍보 강화해야”

남구의회(의장 김병태)는 지난 2일 김병태 의장과 의사팀장 외 2명의 직원이 서울시 동대문구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의회운영과 동대문구의회에 대한 현황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김병태 의장은 “비록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오는 방문은 지난 동대문구의회의 남구 방문과 함께 양 기관이 자매결연 등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인한다”며

방문의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동대문구의회는 의정홍보팀이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한 점이 남구의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 의회 의장은 단순히 상호 방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지난 1월 31일 타지역 의회 벤치마킹을 위해 남구의회를 방문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소식



전국지방의회 신년 합동세미나

예결위원장, 정회회, 반선호 의원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한 2018 전국지방의회 신년 합동세미나에 참석했다.

남구의회 유장근 부의장, 박미순 운영위원장, 김병태 의장은 2월 2일까지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한 2018 전국지방의회 신년 합동세미나에 참석했다.



지역아동센터장들 의회 방문

지역아동센터장 16명이 지난 7일 남구의회를 방문해서 김병태 의장과 현안사안과 운영상 고충 등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의회사무국 ☎ 607-65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시기 : 남구의회 회기중 (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 본회의장
- 방청대상 : 누구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 방청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5분 자유발언



성 동 환 의원
(용당, 감만1-2, 우암)

불법주정차에 대한 안전불감증 실태를 진단하고 남구의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수급실태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남구의 차량등록대수는 9만6,093대로 부설 및 민영주차장 확보율은 98.6%로 16개 구·군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차장 확보가 절실합니다. 남구의 주차장 확보를 편차가 심해 하위 1순위가 우암, 감만, 문현동 순으로 주택 밀집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법 주차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연4동, 대연1동, 문현1동, 우암동, 감만1동 순이며, 대연4동과 대연1동은 유동인구와 통행량이 많아 불법 주차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박 미 순 의원
(용호1)

지금 남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개발 정비사업과 백운포 씨사이드, 용호부두를 연계한 설치리 개발, 북항건설 신축 등 변화의 바람 속에 더 큰 발전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대로 옹골대라는 전례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남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남구를 알리는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자연경관을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의 삶에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해양 선점으로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재정립 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극지 연구개발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극지연



박 기 홍 의원
(대연3-5-6)

우리 남구는 종합적인 청년층 지원을 위해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및 용호상성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대학가 문화·예술·교육·창업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거점 플랫폼 마련을 위해 조성한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문제부터 주거문제와 결혼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고, 하청에 하청, 아웃소싱 아르바이트라는 늪에 빠진 청년들의 아픔 등 다각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청년층의 목소리는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위한 정책이 전면

공영·소규모 공동주차장 추가 확보를

문현, 우암, 감만동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협소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연히 이런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12월말 기준 남구의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모두 16곳 331면으로 12개 동에 설치되었으나,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년에 평균 한 곳 정도로 설치되었다는 것은 '남구 행정가 관내 소규모 주차장 확보에 소극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구청에서 소규모 공동 주차장의 확보가 절실한 동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남구 정비사업구역의 우암, 감만, 문현동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과 도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차단속, CCTV로 지역주민의 불만을 늘어난 사고 각 동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현대화사업 등 시장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 주변

주차단속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암동은 문화복합형 소규모 원형복원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에 등록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제강점기의 역사 및 문화탐방 등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일대에 대형주차장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없는 현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으로 2019년까지 기반설치가 마무리되면 2020년부터 민간기업이 들어와 신규 고용인원 창출이 생기는 등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유발효과로 주차 정착율이 높아져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소 방안으로 규모에 맞는 교통 기반시설 중 공영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보를 위해 도로변 주택가 주변 일부를 수용해 민간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소통대책 용역 시 이들 지역에 대한 개선계획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외지 방문객의 안전한 주차를 위해 공영·소규모 공동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용호만에 극지타운 유치해 남구 랜드마크로

구소와 극지실증연구단지, 극지체험관 및 박물관, 연구지원 시설 등을 갖춘 부산 극지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시·종점이 될 부산에 극지 연구와 극지 교육, 극지 관광이 어우러질 극지타운이 조성된다면 부산은 세계적인 극지허브 도시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주민들의 공적 문화 공간 확대와 더불어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세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극지 가치 창출은 극지자원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는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극지타운은 남구 분포고등학교 옆 용호만 매립지 내 하수종말처리장 2만3,000㎡의 부지에 연면적 1만8,000㎡의 3개동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산시의 계획일 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비, 시비 예산만도 총 1627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니 만큼 사업 진행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 남구 주민들의 의지로 충분히 부산극지타운 유치가 실현 가능하리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북극 중심의 극지 연구와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하는 물류 연구 등 관련되는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해야만 합니다. 살기 좋은 남구는 교육, 문화, 교통,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삶,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남구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남구에 회색빛 대규모 건축물 난립이 아닌 극지타운 등 미래지향적 사업장을 유치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구 주민들의 삶이 더욱 희망적이며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풍부한 지역발전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만큼, 재개발 정비사업이나 아파트 건립보다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남구 주민들의 미래 비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시 청년할당제 도입해야

적으로 재검토되고 그들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서서 고민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 자치법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위원회나 아닌 한, 위원 구성원 수 가운데 10%를 청년세대를 위촉하는 '청년할당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미래 세대를 키워나가는 원동력이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열린 노력이 수반되어야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를대면,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청년위원 10%를 할당하여 청년들이 아동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교통, 생활 등 각 분야 관련

위원회에서 청년위원들을 위촉해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한다면 정책실행에 있어 청년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문가계층 및 중장년층으로부터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자중심주의를 적극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창구로서, 위원회가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도입할 때, 지역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청년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구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논의 및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청년계층의 어려움과 소외됨을 이해하고, 청년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나갔노라 다짐합니다.